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정 양
우석대 문예창작과 명예교수·시인

월사금, 사친회비, 육성회비, 기성회비 등등은 중·초·고등학교 수업료의 진화된 이름들이다. 한국전쟁을 전후해 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은 월사금이나 사친회비 등을 제때 내지 못하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을 많이 겪었다.

중·고등학교 때에는 시험기간 중에 서무과 직원이 교실에 들어닥쳐 월사금이나 사친회비 안 낸 학생들을 일일이 호명하여 교실 밖으로 내몰기도 했다.

내쫓긴 학생들은 울고 싶을 때 뽀뽀 맞은 적이 되어 답답한 학교를 벗어나 들로 산으로 신바람나게 먹을거리를 찾아다니며 굶는 것들을 하기도 했고 어떤 아이들은 슬금슬금 다시 학교로 기어올랐다.

선별적 복지보다 선별적 증세를

쫓겨났던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가면 시험감독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을 모르는 채 눈감아주시기도 했다.

학교에서 쫓겨나는 아이들 중에는 집에서 준 월사금이나 사친회비를 탄 데 써 버리고 냉가슴을 앓는 아이들도 없지 않았다.

최근 서울 어느 학교에서 급식비 안 낸 학생들을 따로 호명해서 급식비를 재촉한 교감선생님이 화제로 오르내리는데, 사친회비를 탄 데 써버린 아이들처럼 집에서 준 급식비를 탄 데 써버리고 호명받는 아이들도 필시 비슷한 냉가슴을 앓았을 게다.

한국전쟁 전후에 학교에서 쫓겨난 경험을 가진 이들은 그런 정도의 일이 화제가 되어 언론에 오르내리는 세상에 대해 격세지감이란 말이 실감나기도 할 테고, 비교육적 처사라며 지탄받는 그 교감선생님의 고충에 한 가닥 연민이 앞서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지 않던가. 급식비 안 낸 학생을 하필이면 식사 전에 따로 호명하는 건 누가 봐도 비교육적이다.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도 학생들 무상급식 중단으로 시끄럽다. 무상급식 문제는 때마침 치러야 하는 성안중 회장 리스트 수사와 맞물려 아무래도 상당기대 논란이 지속될 모양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리는데,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데지 밥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라니 막말까지 동원된 걸 보면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해당 단체장의 집념도 만만찮아 보인다.

그게 몇 년 전 서울시장이 가진 사퇴하게 된 일인데도 틀린 답을 애써 옮겨 쓰는 수험생처럼 같은 일로 남다른 집념을 보이는 걸 보면 해당 단체장의 집념에는 그럴 이유가 꼭 있는 것처럼 비장해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아랫뺨 빼어 뺨뺨으로 삼는 듯한 그의 대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학부모도 많다고 한다.

그런 비장한 집념의 합리성을 따지기에 무상급식이라는 말의 점점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의 세금으로 먹는 밥이 어째서 무상급식인가. ‘공것’이라는 말은 ‘공공(公共)의 것’의 준말이다. 공(公) 것은 공짜라는 고정관념이 무상이라는

말 속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혀 있는 건 아닐까.

무상급식, 의무급식 등등의 말들이 다소 찻찻한 뒷맛을 남기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런 말들 속에 못 박힌 ‘공(公)것은 공짜’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보편적 급식과 선별적 급식의 총동지점에서 증세 문제가 필연적인 것처럼 제기되기도 하는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올렸다는 담뱃값 같은 보편적 증세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의 건강까지 난폭하게 증폭하고 있다.

현실적인 듯 합리적인 듯 내세우는 선별적 복지보다 정작 필요한 것은 선별적 증세다. 선별적 증세가 선행되어야 보편적 복지도, 급식도 그나마 기초가 잡힐 것이다.

무슨 리스트나 각종 비리와 관련되어 공짜를 꿀꺽 삼키고도 딱 잡아떼는 이들이 요즘 무더기로 거론된다. 왕년의 차떼기에 크게 놀랐던 이들이 요즘의 잡아떼기 행태에는 아예 말문이 막힌다. 꿀꺽꿀꺽 삼키고도 딱 잡아떼는 그 내공들이 한결같이 소름 돋을 정도로 진부하기 때문이다.

의료칼럼



김 수 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 여행객 유치와 의료관광산업에 중점을 둔 사업들을 대거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 역시 유커 유치와 의료관광산업 추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한 예술, 교육의 도시인 광주는 지역적 역사적 특성상 아시아 주요 도시들과의 교류가 용이한 이점이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자원의 상호교류 및 소통의 장으로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도시라는 데 의의가 없을 것이다.

지난 2009년 광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274명에서 2013년 1900명으로 매년 방문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

의료관광의 산업화

히 전체 외국인 환자 중 26.1%가 중국인으로, 이들은 2009년 56명에서 2013년 495명으로 5년 사이 8.8배나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일명 ‘유커’라 불리며, 2013년 기준 1인당 지출액이 약 242만원으로, 관광객 수는 2007년 100만명 수준에서 2013년 433만명으로 연평균 26.2%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의료관광 국가인 태국 등과 비교하였을 때 외국 관광객 유치율은 미미한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 각 지역마다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하나로 융합한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광주는 2014년 민선6기에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중국과 친해지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적으로 ‘광주권 대중적 의료관광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절, 심장병, 종양, 치과 임플란트 및 양악 수술 등의 선진의료 분야를 특화하여 중국 유커 유치와 더불어 의료관광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서울과 광주간의 KTX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90분대 생활권에 접하게 되며, 7월에

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로 170개국 2만여명의 선수단이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서 9월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으로 건국 이래 최대 문화프로젝트가 펼쳐지는 등 광주와 전남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해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관광은 성형, 미용, 건강검진과 같은 의료 서비스가 펼쳐지는 등 광주와 전남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해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관광은 성형, 미용, 건강검진과 같은 의료 서비스가 펼쳐지는 등 광주와 전남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해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관광은 성형, 미용, 건강검진과 같은 의료 서비스가 펼쳐지는 등 광주와 전남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해를 맞이하게 된다.

기 고



윤 봉 군
광장21감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다. 기초질서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시작되므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훈육 수법을 따라하는 생활습관이 평생의 행동패턴으로 이어진다는 말일 것이다.

덕육이 농경사회의 대가족제도 하에서는 가정교육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생활습관은 사회규범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였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생활 모습은 어떤가? 핵가족화와 부부 맞벌이의 영향으로 가정교육의 기능은 쇠퇴해졌다. 그나마 한두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때문에 기초질서를 체득케 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기초질서는 물론 인성교육의 상당부분 까지도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의 몫이 되었다. 가정교육의 기능약화! 그래

우리의 기초질서, 빛과 그림자

서얼까? 요즘 우리사회 곳곳에서 무너진 기초질서의 현장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첫째는 쓰레기 투기를 생각해보자. 공동 주택이건 개인 주택이건 쓰레기봉투 의무사용과 음식물 및 분리수거 상황을 보자. 청문회 때 활용된 용어처럼 남이 하면 불범이요 내가 하면 합리화란 말인가. 살기머니 일반

비닐봉투나 봉투도 없이 버리는 양심은 어떤 사람일까? 심지어는 일반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와서 유원지나 도로 곳곳에 놓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 통탄할 일이다.

둘째는 공중대중탕이나 찜질방문화를 보자. 목욕탕 탈의실에서는 옷을 탈탈 털는 사람들이 많다. 탕 안에서는 비누칠 후 몸을 닦고 있을 때나 면도할 때는 샤워꼭지에 물을 잠가야 함에도 계속 물을 흘려 보낸다. 가래침을 뱉고도 미안함을 모르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한다.

찜질방은 남녀가 공용이므로 지켜야 할 예절이 많으나 객기에 가까운 정도 언행으로 주요 분들을 황당하게 한다. 샤워가 끝나고 나와 수건도 한 장이면 충분인데 몇 장씩 쓰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도 씻고 난 후 몇 장씩 쓰는지 이해가 안 간다.

셋째는 운동경기장이나 수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 장소를 가보자. 큰 경기나 연에 인 행사 때 보면 출서기를 잘 지키는 사람과 새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사회의 양면성을 보는 것 같다. 다행인 것은 모범적인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경기가 끝난 후나 집회가 끝난 후를 보면 우리들 의식 수준의 현주소를 본 것 같아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문화를 보자. 신호 위반은 물론 끼어들기, 꼬리물기, 장뚱에 담배꽂초 버리기, 아무데나 주차하기, 음주운전, 비상차량에 양보 안하기, 운전 중 전화사용 등 말할 수 없는 이기적 불법 운전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오게 한다. 특히 여성운전자들을 폄하하고 욕박지르는가하면, 공공장소의 주차장이나 아파트 등에서 주차선이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불법 주차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전 세계인의 높은 관심과 은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했던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던 저력이 있지 않은가?

특히 경기장에서의 출서기, 차량 이동 간에 교통규칙 지키기, 열렬하고 격조 높은 응원, 관람 후의 깔끔한 뒤처리로 세계

화는 물론 관광객들에게는 의료 및 관광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세계적인 의료관광 산업국가인 태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연간 156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우리나라에 비해 열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러한 격차는 환경적 문제라기 보다는 관련 제도나 인프라의 문제로 여겨지며, 이를 위한 광주와 전남 관련부처의 실질적인 대안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인 의료 전문통역사를 배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관광객과 호텔 및 관광시설 간의 매칭을 지원하는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셋째, 환자 픽업 및 치료 후 관리와 국내 관광을 연결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분쟁 발생시 법적 중재 역할과 의무기록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할 의료관광 에이전시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듯 의료관광산업은 광주와 전남의 다양한 자원과 문화, 기술을 활용하고 지역의 내수산업과 중소기업을 키움으로써 지역경제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社 說

송정~목포 KTX 노선, 지역 여론 따라야

전남도가 광주 송정과 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사업의 신속한 확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예정된 2020년 개통을 맞추기 위해서는 오는 6월 말까지 결론을 내야 하며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건설돼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전남도는 21일 “기재부가 늦어도 6월 말까지 사업 계획을 확정해야 실시계획을 거쳐 2017년 착공해 2020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점을 넘기면 차질 공기에 차질을 빚어 2020년 완공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단계 사업은 애초 2017년에 끝내기로 했다가 한 차례 연기한 적이 있어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이달 초 서울 용산~송정간 KTX 개통으로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개통 후 목포역 KTX 이용객이 2배가량 늘었고, 특히 토요일 오전 용산에서 목포행 승차권이 모두 매진되는 등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한데도 추진을 미루고 있는 것은 노선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국토부와 전남도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를 잇는 노선 건설을 주장하는 반면 기재부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송정~나주~목포를 연결하고 무안공항은 합병에서 지선화해 운행하자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국토부와 계속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다. 박근혜 대통령조차 “2단계 사업은 지역 의견과 승객의 수요 등을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의 말처럼 전남도 안은 극히 합리적인 방안으로, 정부가 조속히 수용하는 게 순리다.

무안공항 경우는 지역 발전의 동맥으로써 백년대계를 염두에 둔 지역민의 바람이다. 기재부는 단순한 눈앞의 예산 절감에 얽매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더 이상 호남선에 제동을 걸지 말라.

형식적인 광주 ‘희망교실’ 전면 재검토하라

광주시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희망교실’이 외형 확대에 치중해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지원비가 크게 줄면서 교육 소외 학생 지원이라는 명분에서 벗어나 ‘피자파티’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교사가 멘토로 나서 교육 소외 학생,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기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각종 지원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3년째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원 대상을 학급·학년·동아리형으로 분류해 학급과 동아리형은 교실당 50만 원, 학년형은 4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으며 지원금은 교재비, 문화·진로체험비, 상담·강사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희망교실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지원 예산은 반토막에 그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3년 1607개였던 희망교실이 지난해

에는 5098개, 올해는 6171개로 3배 이상 확대됐으나 예산은 지난해 32억 원에서 금년엔 30억 원으로 되레 감소했다. 교실당 지원액은 2013년 300만 원에서 지난해 100만 원, 올해는 40만~50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 예산은 한정된 반면 희망교실 수요는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지원금이 줄어들자 일선 학교에선 당초 세웠던 계획을 축소해 형식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어진 것이다. 일부 학교에선 이 지원금으로 피자파티까지 하고 있단다.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본질에서 벗어난 희망교실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예산을 대거 늘려든지, 예산 확충이 어렵다면 성과를 올린 학교를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겉치레만 내세운 교육정책은 불신만 사게 될 뿐이다.

無 等 鼓

야구가 9회말 투아웃 이후부터라면 골프는 장갑을 벗어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역전의 묘미가 다른 스포츠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골프계에서 역전의 명수는 단연 김세영(22·미래에셋)이다. 김세영은 19일 끝난 LPGA 투어 롯데챔피언십에서 LPGA 역사에 남을 드라마틱한 우승을 일궈내며 ‘역전의 여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최종 라운드에서 한때 3위로 밀렸지만 18번 홀에서 집사로

슬럼프에 빠졌다. 김세영을 슬럼프에서 건진 것은 두둑한 배짱과 궁정 마인드였다. 불운을 겪었으니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신념은 ‘멘탈게임’인 골프에서 강한 정신력으로 발휘됐다. 마침내 2013년 행운이 불뚱처럼 터졌다. 롯데마트 여자오픈에서 KLPGA 첫 우승을 시작으로 그해에만 3승을 차지했다.

업권은 9월 열린 한화금융클래스 우승이다. 대회 마지막 날 8번 홀까지 선두에 5타자로 뒤졌지만 9번 홀 샷이글을 시작으로 추격전에 나섰

역전의 여왕

까지 7번홀 우승을 모

두 역전으로 장식했다. 하지만 김세영이 처음부터 행운의 주인공은 아니었다. 여고 2년때인 2009년 제주 라센느골프장에서 열린 김영주여자오픈 최종일, 2타차 선두를 달리다 13번 홀(4)에서 잘 맞은 드라이브샷이 페어웨이를 가로지르는 카트도로에 맞고 OB가 났다. 결국 이 홀에서 트리플 보기(기준타보다 3타 초과)를 기록해 2타차로 우승을 놓쳤다.

장타인 드라이브샷은 ‘트라우마’가 돼 임스(Yips·샷 실패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 증세)를 낳았고 이후 3년간 긴

를 잡고 17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해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간 뒤 우승을 안았다. 한 라운드에서 이글과 홀인원을 동시에 할 확률은 로또 1등 당첨(800만분의 1)보다 낮은 6700만분의 1이다.

김세영은 LPGA 데뷔 첫 해, 벌써 2승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상금과 올해의 선수상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의 신인상은 물론 박세리가 보유한 역대 신인 최다승(4승) 기록도 넘어설 기세다. 영암 출신 ‘태권 소녀’의 빨간 바지 마법에 기꺼이 빠지고 싶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채 육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